

㉞ 2級受信器 : 2급 受信器는 整流電源 또는 交流電源을 使用한 것으로 斷線의 有無를 監視하지 않으며 回路數는 10回路 以內의 簡單한 것이다.

受信器에 부착된 蓄電池는 特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警報設備 專用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回路數에 따른 蓄電池의 容量은 다음과 같다.

P型(다회선식) 수신기의 경우

- ㉠ 60회선 以下→36AH 以上
- ㉡ 80회선 以下→48AH 以上
- ㉢ 120회선 以下→60AH 以上
- ㉣ 121회선 以上→108AH 以上

결론적으로 말해서 設置規程은 앞에서 열거한 바와 같은데, 補修 및 管理를 철저히 하지 않는다면 設置規定에 맞추어 設置했다 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補修, 管理 및 監督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973. 8. 17까지의 점검현황(총 35건)을 살펴 보면

- ㉠ 수신기의 주경종 설치미비 : 18건
- ㉡ 수신기의 예비전원 미확보 : 27건
- ㉢ 수신기의 전화 설치 미비 : 29건
- ㉣ 수신기의 도통회로 설치 미비 : 24건
- ㉤ 감지기의 설치밀도 및 설치위치 기준미달 : 33건
- ㉥ 감지기의 적응성 위반 : 7건
- ㉦ 자·수동 경보설비 미 설치 : 2건
- ㉧ 관리 및 보수 불량 : 28건으로 앞으로의 개선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 豫備點檢 나가던 날

찌는듯한 무더위를 무릅쓰고 찾아간 곳이 4층건물이다. 건물주와 나눌 대화를 미리 생각해 두었으나 그래도 염려가 되어 층계를 하나 하나 오르며 생각한다.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저렇게 물으면 저렇게 대답해야지.」

잠간 망설이다 관리사무실 문을 <노크>했더니 칼칼한 목소리가 들린다. 『들어와!』 무조건 반말이다. 「이거 왜 이러지. 당신에게 봉사를 하기 위한 전달을 왔단 말이야!」 이걸 생각뿐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는 꾸벅 인사를 하고,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공손하게 예의를 보였는데 상대방에선 <유니폼>의 이 몸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흔들다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다.) 유난히 알아 보이는 의자에 앉은채 고개를 창문 쪽으로 돌린다.

무더위에 이 건물을 찾느라고 연실 흐르는 얼굴의 땀을 닦으며 주인의 말을 기다려도 아무 반응이 없다. 긴장된 나의 목구멍에선 침 삼키는 소리가 「꿀꺽」 하고 난다. 다시 한번 아주 정중한 어조로 나의 신분을 밝혔다.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이나? 『안들어! 안듣는단 말이야!』 이 고함 소리에 나는 얼마큼이나 놀랐던가. 흐르던 땀이 도로 들어 갈 정도였다. 그러나 나는 끝 이렇게 생각했다. 「아하! 이 분이 보험 <제일즈맨>으로 잘못 알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말을 하려고 했다. 『저 그렇게 아니...』 『고...』자가 나오기도 전이다. 『그런데 이거 왜 이러는거야? 안듣는다면 안듣는 줄 알아!』 고함 소리에 또 한번 놀랐다. 이걸 정말 너무하는 게 아닌가? 설명도 듣지 않고 이런 수

가 있나? 그도 그렇고 수염도 안달린 예비 할아버지도 아닌 사람이 아무리 내 몸에 걸친 <유니폼>이 영성해도 저음 보는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가 말이다. 나는 정말 이제 화가 났다. 그러나—그러나, 임무를 생각해야지! 창립된지도 얼마 되지 않은 우리 한국화재보험협회의 <이미지>를 위해 참자! 정말 참았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말했다간 뭔가 틀림없이 날아올 것 같은 기분이다. 『설명드릴 수도 없으니 그냥 가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말하긴 했지만 상대방에 비해 얼마나 신사인가 말이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다. 문을 닫고 나오니 울화가 치민다.

더위와 울화통 속에서 한참 걸다보니 어느틈에 현회건물 현관이다. 냉각된 찬 바람이 몸을 휘감으니 어느정도 기분이 풀린다.

그 이후, 십여 차례 예비 점검을 나갔으나 그런 첫날의 경우는 다시 없었다. 혼자서는 확실한 판단을 하기 곤란하지만 내가 생각해 낸(살은 아무 것도 아닌) 방법이 통하는 것인가 보다. 관리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수고하십니다.』 하면 나를 쳐다본다. 『점검통지서를 가져왔습니다.』 라고 하니, 어떤 의무적인(사실이 그렇지만) 암시를 주기 때문인지 『무슨 점검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의 사전 방문의 임무는 차분한 설명으로 <스무스>하게 이루어지고 기분 좋게 도장을 받아 나온다. 때로는 시원한 냉 <커피>의 응송(?) 대접을 받으며, 잠간 동안 더위를 잊는다. 나는 또, 내일도 모레도 또 그 다음 날도 화재 예방 점검과 예비 방문을 위해 열심히 뛰어갈게다.

李 炳 宣